



종교개혁자들의 이슬람

The Reformers Views on Islam

저자 (Authors)	변창욱 Chang Uk Byun
출처 (Source)	Muslim-Christian Encounter 10(1), 2017.03, 99-132(34 pages)
발행처 (Publisher)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한국이슬람연구소 TORCHTRINITY Center for Islamic Studies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179479
APA Style	변창욱 (2017). 종교개혁자들의 이슬람. Muslim-Christian Encounter, 10(1), 99-132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220.67.255.***
2021/02/09 (Accessed)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종교개혁자들의 이슬람*

변창욱*

- I. 들어가는 말
- II. 종교개혁기 이전 교회의 이슬람 이해
- III. 종교개혁기의 이슬람 이해
- IV. 맺는 말: 무슬림에 대한 선교적 제언

*이 논문은 2017년 장로회신학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장로회신학대학교 선교학 교수

I. 들어가는 말

622년 아라비아 반도에서 시작된 이슬람은 632년 무함마드 사망 후에 파죽지세로 팔레스타인, 북아프리카를 정복하고, 711년 이베리아 반도로 진격한 후 피레네 산맥을 넘어 서유럽으로 북진하다가 732년 투르-프와티에(Tours-Poitier) 전투에서 프랑크 왕국의 찰스 마르텔(Charles Martel, 686-741)에 의해 패퇴하게 된다. 그 후 1400년 동안 이슬람은 기독교와 공존관계를 유지하면서, 갈등과 대립 속에서 선교·변증적 관계를 형성하여 왔다. 이슬람에 대해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1년 알-카에다에 의해 납치된 민간항공기가 미국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들이받는 9/11 테러부터일 것이다. 이후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라크와의 전쟁을 시작했다. 2014년 6월말, 이라크와 시리아를 주요 무대로 활동하는 수니파(Sunni)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lamic State, IS)는 인질 참수와 이슬람 지역의 기독교계 소수 민족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잔혹행위를 거듭하면서 서구와 세계교회는 이슬람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다.

본 글에서는 16세기 종교개혁기 개혁자들의 이슬람 이해를 통시적으로 고찰한다. 루터(Luther)와 칼뱅(Calvin)을 중심으로 그들이 남긴 여러 저술(primary sources)에 나타나 있는 이슬람 인식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이슬람에 정복당한 지역에서 이슬람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7세기 시나이의 아나스타시오스(Anastasios), 8세기 다마스쿠스의 요한(John of Damascus), 테오도어 바르 코니(Theodore bar Koni), 13세기 레이몬드 룰(Raymond Lull) 등의 이슬람 이해를 살펴본다. 이들의 이슬람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종교

개혁자들의 이슬람 이해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II. 종교개혁기 이전 교회의 이슬람 이해

7세기 중엽부터 시작된 이슬람의 정복과 확장과정에서 무슬림에게 정복당한 지역에 거주하던 동방교회(비잔틴 제국)의 기독교인들은 서방교회보다 더 직접적이고 체험적으로 무슬림들의 종교와 사회를 파악할 수 있었다.

1. 동방교회의 이슬람 이해

1) 시나이의 아나스타시오스(Anastasios of Sinai)

690년대의 수도원 수사였던 시나이의 아나스타시오스(Anastasios of Sinai, 700년경 사망)는 시리아, 이집트 등지를 순회하며 단성론(Monophysitism)을 논박하였다. 아나스타시오스는 비잔틴 제국의 황제 헤라클리오스(Heraklios, 610-641 재위)가 단성론 이단을 옹호하는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이슬람의 동방교회가 무슬림들의 침공을 받았으며 이는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보았다.¹ 아나스타시오스는 무슬림들을 기독교의 적으로 보았으며, 이슬람을 여러 기독교 이단(Christian heresy) 가운데 하나로 이해하였다.²

1 Sidney H. Griffith, "Anastasios of Sinai, the Hodegos, and the Muslims," *Greek Orthodox Theological Review* 32 (Winter 1987): 345.

2 Sidney H. Griffith, *The Church in the Shadow of the Mosque: Christians and Muslims in the World of Isla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8), 30-31.

2) 다마스쿠스의 요한(John of Damascus)

시리아 정교회의 교부 다마스쿠스의 요한(John of Damascus, 749년경 사망)은 이슬람 치하에서 일생을 지냈다. 요한은 『지식의 근원』(*Source of Knowledge*)이라는 책의 “이단에 대항하여”(Against Heresies)라는 장에서 100개의 기독교 이단을 언급하는데, 이슬람을 가장 최근에 생겨난 이단, 즉 101번째 이단으로 간주하였다. 그는 이슬람을 “이스마엘족 이단”이라고 규정했으며 이슬람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적그리스도의 선구자”라고 보았다. 요한은 무함마드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접한 이후에 아리우스(Arius)파 수도사의 영향을 받아 “이스마엘족 이단”을 고안했다고 보았다.³

무슬림들이 기독교의 주요 교리들을 공격해오자, 요한은 이슬람의 경전(꾸란)을 근거로 이슬람에 대한 비판을 논리적으로 전개한다. 이러한 접근은 같은 8세기 이슬람 치하의 스페인 기독교인들이 무함마드에 대해 보여준 인신 공격적 태도와는 다른 인식을 보여준다. 요한은 이슬람이나 꾸란, 무함마드에 대한 비방 일변도의 험담을 지양하고, 꾸란에 근거한 대화식 논쟁을 시도하는데 이러한 방식은 이후 기독교-이슬람 논쟁의 효시를 보여준다.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슬람을 그리스도의 신성(神性)을 부인하는 아리우스파(Arianism)에 속하는 이단으로 단정하였다. 이슬람을 하나의 이단으로 단정한 요한의 주장은 이후 비잔틴 제국 뿐만 아니라 서구교회의 선교역사에서 수많은 전도용 소책자에게

3 Griffith, *The Church in the Shadow of the Mosque*, 40-42, Daniel J. Sahas, *John of Damascus on Islam: The "Heresy of the Ishmaelites"* (Leiden: E. J. Brill, 1972), 58-59 와 Anastasios Yannoulatos, "Byzantine and Contemporary Greek Orthodox Approaches to Islam," *Greek Orthodox Theological Review* 55 (2010): 64-65도 참조하라.

4 성백용, "십자군 시대 서유럽의 이슬람세계에 대한 인식과 담론의 유형들," 『역사와 담론』 80 (2016년 10월): 335.

지 널리 인용되기 시작하였다.⁵ 유의할 것은 요한이 이슬람을 이단 혹은 적그리스도로 규정한 것은 종교개혁기 루터와 칼뱅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3) 테오도로 바르 코니(Theodore bar Koni)

8세기 말 이슬람의 지배하에 살아가던 동방교회의 테오도로 바르 코니(Theodore bar Koni, ca. 792)는 무슬림들이 통상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기독교 교리를 방어하기 위해 주석서의 일종인 『스콜리온』(Scholion)을 저술하였다. 그는 무슬림들도 구약 성경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인정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테오도로는 이슬람을 이단으로, 무함마드를 이단의 우두머리로 간주하였다.⁶ 주목할 점은 테오도로가 『스콜리온』의 제10장에서 무슬림들이 의의를 제기하는 기독교 주요 교리를 소개하고 있다. 테오도로에 따르면, 성경, 그리스도, 세례와 성찬의 신비, 십자가 숭배,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론 등이 기독교-이슬람의 주요 논쟁거리였다. 이러한 논쟁점은 이후 500년 동안 이슬람 치하에 거주하는 기독교인들이 저술한 수많은 선교·변증 소책자에 계속하여 등장하고 있다. 그 가운데 삼위일체, 성육신 사건은 기독교와 이슬람 간 논쟁의 단골 메뉴가 되어왔다.⁷

2. 서방교회의 이슬람 이해

1) 무함마드 전기(8-9세기, 이슬람 치하의 스페인)

5 Griffith, *The Church in the Shadow of the Mosque*, 42.

6 Ibid., 42-43.

7 Ibid., 81-82.

711년 북아프리카의 토착민 베르베르(Berber)족을 선봉대로 하는 이슬람 군대는 지브롤터 해협을 넘어 스페인을 침공하기 시작하였고, 718년 이베리아 반도 정복전쟁을 완성시켰다. 이후 무슬림 치하의 스페인에서 발견된 8세기 중엽에 기록된 『무함마드 전기』에 의하면, 무함마드는 고리대금업자와 욕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호색한(好色漢)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처럼 무함마드에 대한 인식이나 이미지는 비방이나 비하로 가득 차있다. 무함마드는 악한 영의 조정을 받는 사람이며 자칭 ‘선지자’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또한 9세기 중엽에 기록된 『무함마드의 전기』에 의하면, 무함마드가 오짐(Ozim)이라는 이름의 기독교 수도사로 나타난다. 그는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받은 계시를 전하러 가던 중에 악한 천사(사탄)의 유혹에 빠져, 무함마드로 개명하였고 이후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탐욕의 신인 맘몬(mammon)의 종이 되었다고 소개되어 있다.⁸

2) 11세기 십자군 운동기

1076년 로마 교황 그레고리 7세(Hildebrand, c.1015-1085, 1073-1085 재위)는 기독교인과 무슬림이 동일한 신을 믿고 있다며 알제리의 술탄 알 나시르(al-Nasir, 재위 1062-1088)에게 서한을 보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우리는 한 분의 하나님을, 비록 서로 다른 방식으로이긴 하지만, 믿고 고백하며 모든 시대의 창조주이자 이 세상의 지배자로서 나날이 그 분을 찬양하고 숭배하기에, 당신들과 우리는 그 어떤 인간 종족들보다 더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해야 마땅합니다.⁹

8 성백용, “십자군 시대 서유럽의 이슬람세계에 대한 인식과 담론의 유형들,” 330-331.

9 Ibid., 324.

교황 그레고리 7세가 술탄에게 화해의 손길을 제안한지 20여 년이 지나지 않은 1099년 1차 십자군 전쟁이 시작된다. 십자군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슬람에 대한 서구교회의 인식과 태도가 변하게 된다. 예컨대, 11세기말 마인츠의 엠브리코(Embrico of Mainz, 재위 1072-1090)가 라틴어로 저술한 『무함마드의 생애』(*Vita Mahumeti*)에서 무함마드는 ‘이단의 교주’, 근친상간의 죄를 저지르는 패륜아로 나타나는 등 무함마드나 무슬림에 대해 악마화 된 이미지가 강조되고 부정적으로 묘사되기 시작한다.¹⁰

3) 13세기 레이몬드 룰(Raymond Lull)

많은 무슬림들과 공존하는 지중해의 스페인령 발레아레스 제도의 마요르카섬(Majorca)에서 출생한 레이몬드 룰(Raymond Lull, c.1232-1315)은 “가장 숭고하고도 완전한 하나님 개념을 가진 종교가 참된 종교”라고 주장한다. 그는 기독교-이슬람 두 종교의 신적인 속성을 비교하며 양자의 차이점을 제시한다. 룰에 의하면 알라(*Allah*)의 속성에는 의로움과 지혜가 엿보이기는 하지만,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사랑으로 자신을 계시하신다. 룰은 기독교가 이슬람보다 낮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¹¹ 이처럼 룰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기독교의 우수성을 논증해 보였다. 그는 이슬람의 알라 개념은 기독교의 신관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슬람의 법은 오류와 거짓으로 가득차 있다고 보았다.¹²

10 Ibid., 332.

11 “The Apostle of Algeria: Raymond Lull, 1236-1315,” *Modern Churchman* 32 (January 1843): 334.

12 이은재, “기독교와 이슬람: 라이문두스 룰루스(Raimundus Lullus)를 중심으로”, 『한국 개혁신학』 12권 (2002): 107, 119.

4) 14세기 존 위클리프(John Wycliff)

14세기 옥스퍼드 출신의 영국의 종교개혁가 존 위클리프(John Wycliff, 1324-1384)는 이슬람이 생겨나게 된 것은 로마 가톨릭교회의 죄악과 악행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위클리프는 교회의 타락으로 인해 이슬람이 생겨났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면 이슬람이 쇠퇴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교회의 자기정화에 나설 것과 교회가 성결함을 회복할 것을 주장하였다.¹³

3. 기독교회의 이슬람 이해(8세기-15세기)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 속에는 예수, 아브라함, 모세, 다윗을 포함한 수많은 성경 인물과 성경의 사건이 나타난다. 그리하여 기독교회는 이슬람의 발흥 초기에 이슬람을 기독교와 같은 줄기에서 갈라져 나온 분파나 ‘이단’ (heresy)으로 이해하였다. 7세기 중엽 이후 14세기에 이르기까지도 교회는 이슬람을 ‘이단’ 혹은 교회의 ‘적’ (enemy)으로 간주하였다.¹⁴ 예컨대, 12세기 초 스페인에서 선교사역을 했던 가정자 피터(Peter the Venerable, ca. 1094-1156)는 이슬람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한 초기 인물인데, 그도 이슬람을 이단으로 보았다. 이처럼 이슬람이 생겨나고 500여 년이 경과하여도 기독교회의 이슬람에 대한 이해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14세기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이슬람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았다. 또한 이슬람을 신흥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의 한 분파나 타락한 기독교 이단 가운데 하나로 인식하고 있었다.

13 Richard W. Southern, *Western Views of Islam in the Middle Age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62), 80.

14 Jaroslav Pelikan, *The Growth of Medieval Theology(600-1300)* (Chicago/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8), 242-243.

Ⅲ. 종교개혁기의 이슬람 이해

1. 종교개혁기의 기독교와 이슬람 관계

15-16세기 종교개혁을 전후한 시기의 유럽은 이슬람의 계속된 공격으로 인해 매우 불안한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1453년 동로마 비잔틴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이 오스만 투르크(Ottoman Turks)에 의해 정복당했으며, 이는 서구교회에 커다란 충격이었다. 15세기 말에도 이슬람 군대는 동유럽 다뉴브 강까지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었다. 1517년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붙였을 때, 이슬람 군대는 이집트를 정복했으며, 1521년 8월 오스만 제국 술탄이만 2세(Suleiman, 재위 1520-1566)의 이슬람 군대는 유고의 베오그라드(Belgrade)를 함락시켰고, 1522년 12월 지중해의 로도섬(Rhodes)이 이슬람의 수중에 떨어졌고, 1526년 헝가리의 페스트(Pest)가 이슬람에게 함락되고 병합되었다. 1529년 오스만 투르크가 신성로마제국의 수도 비엔나(Vienne)를 1개월 이상이나 포위하여 공격하고, 1541년에는 부다(Buda)를 정복하는 등 종교개혁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슬람은 가톨릭교회에 상당한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었다. 이후 1571년 10월 7일 기독교 연합 함대가 레판토(Lepanto) 해전에서 이슬람의 투르크 함대를 격파할 때까지 이슬람 전단은 지중해의 제해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1521년 1월 3일 교황 레오(Leo) 10세에 의해 파문을 당한 이후에 루터는 위기상황에 직면하는데, 이 시기는 오스만 투르크가 동유럽의 기독교 도시들을 무자비하게 유린하며 공격해오던 때였다. 특히 1529년 오스트리아 비엔나가 이슬람 군대의 공격을 받으면서

위기상황에 처한 가톨릭교회는 종교개혁 세력을 진압할만한 여력이 없었다. 정리하면, 16세기 종교개혁과 이후 야기된 신·구교 간에 대립과 갈등은 오스만 제국이 유럽을 손쉽게 공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종교개혁을 뒤이어 이슬람 군대가 빈번하게 유럽을 침공함에 따라 가톨릭교회는 이슬람과 개신교라는 공동의 적 앞에서 더 직접적인 위협의 대상인 이슬람의 침공을 막아내느라 종교개혁 세력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없었다. 이는 개신교 종교개혁 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였다.¹⁵

2. 종교개혁자들의 이슬람 이해¹⁶

마틴 루터(1483-1546)와 존 칼뱅(1509-1564)의 종교개혁 시기는 이슬람의 직접적 위협을 받고 있던 유럽의 시대적 상황과 맞아 떨어진다. 그러므로 이슬람의 확장과 동시대에 살았던 루터와 칼뱅이 오스만 투르크와 이슬람의 위협에 대해 빈번하게 언급한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칼뱅에 비해 루터는 이슬람에 관한 많은 글을 남겼다. 루터는 라틴어 번역본 꾸란을 읽었을 뿐만 아니라, 직접 독일어 번역 꾸란의 서문을 쓰기도 했다. 또한 꾸란 논박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독일어로 번역하여 출간하기도 했다.

15 David Sukwon Choi, "Martin Luther's Response to the Turkish Threat," Ph.D. *diss.*,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2003), 3; 김정명, "종교개혁 시대 프로테스탄트들의 이슬람에 대한 이미지 연구," 「중동연구」 제34권 (2015년): 62-63.

16 변창욱, "기독교의 이슬람 이해: 역사적 개관," 「교회와 신학」 제78집 (2014): 335-339를 참조하라.

1) 루터의 이슬람 인식

(1) 루터의 저작에 나타난 이슬람

루터(1483-1546)는 초기 저작인 시편 강의(1513-1515)에서 이슬람을 “이단”으로 간주했다. 이후 루터는 이슬람을 “그리스도의 적” 혹은 로마 가톨릭교회가 회개하도록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이사야 10:5)로 이해하였다. 1518년 루터는 95개 논제를 설명하면서 십자군 전쟁(Crusade)은 가톨릭교회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배교 행위를 감추기 위해 일으킨 것이며 “그들[로마가톨릭]은 그들의 죄악을 징계하는 채찍[투르크]에 맞서서 싸우려고 한다. 이로써 그들은 그 채찍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다.”¹⁷ 라고 비판하였다. 루터에 의하면, 십자군 운동은 가톨릭교회가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인 이슬람에 대항하여 싸우는 전쟁이며 이는 무익한 시도였다.

이슬람 군대가 유럽 전체의 기독교 세계를 위협하는 상황이 되자 루터는 이슬람에 대한 자신의 신학적 견해를 구체적으로 개진하기 시작한다. 즉 1529년 오스만 투르크의 공격으로 비엔나가 위협에 처하자, 같은 해에 루터는 『투르크와의 전쟁에 대하여』를 출판하여 이슬람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기 시작하였다. 교황은 십자군 운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며 이를 정당화하나, 루터는 십자군 전쟁은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마 5:39)는 산상수훈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루터는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군대의 공격을 받을 때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전쟁을 벌일 수 있다(정당 전쟁론)고 주장하였다.¹⁸

17 “Explanations of the Ninety-five Theses,” in *Luther’s Work* 31:92.

18 “Whether Soldiers, Too, Can Be Saved(1526),” in *Luther’s Work* 46:89-137; “On War Against the Turk,” in *Luther’s Work* 46:184-199.

루터는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을 근거로 하여 기독교 신앙과 이슬람의 차이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꾸란에는 성부, 성자, 성령, 세례, 성만찬, 복음, 신앙, 나아가 모든 기독교적 교리와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거기에는 그리스도 대신에 행위와 칼에 대한 무함마드의 가르침만이 있을 뿐이다. 이것은 투르크인들의 거짓 신앙이다.¹⁹

이슬람에는 기독교 주요 교리가 빠져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제거되어 있다고 루터는 보았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악마(devil)에 맞서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로마 가톨릭은 칼을 들고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전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꾸란은 무슬림들이 무력을 사용하여 평화 유지와 보호 역할을 수행하는 세속정부를 파괴하도록 허용하는 신념의 기초를 제공한다고 보았다. 무슬림들은 ‘악마의 도구’가 되어 전쟁을 일으켜 “칼”로써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피흘리게 하며, 가정생활과 결혼을 유린한다고 하였다. 무슬림들은 수치스러운 무함마드의 이름을 세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독하는’ ‘파괴자’이며 ‘적’이라고 단정하였다.²⁰

무슬림 군주의 지배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dhimmis*)²¹이 신앙과 집회의 자유를 허용 받았기 때문에 이슬람의 종교 관용정책에

19 “On War Against the Turk”, in *Luther’s Work* 46:177.

20 “On War Against the Turk”, In *Luther’s Work* 46:162–175,195.

21 덤미는 이슬람 정복지에 거주하는 유대인, 기독교인, 조로아스터교인들로서 인두세(*jizya*)와 이슬람 군주가 부과하는 많은 제약과 열등한 지위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받고 신앙과 집회의 자유를 허락받았다. 이슬람은 초기 정복 이후 7세기 중엽부터 비무슬림들과 이러한 협약(*dhimma*)을 맺기 시작했는데, 11세기 말 세계기독교인의 약 50%가 무슬림 통치하에 덤미로 살았다(Griffith, *The Church in the Shadow of the Mosque*, 11).

대해 우호적으로 말하는 이들이 있으나, 루터는 이슬람에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사람들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해야 구원을 얻는데(롬 10:9),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게 하고 시인하지도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다음 세대에 신앙을 계승해나갈 수 있겠는가 라고 루터는 반문한다. 루터는 이슬람 통치하의 기독교인들이 담미(*dhimmi*)로서 받아들여야만 했던 여러 제약과 이슬람의 기독교 억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²²

여러 엄격한 제약 속에서 [교회 집회는 허락되지만] 기독교 신앙을 소리 낼 수 없고 비밀리에 집회를 가져야 하는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기독교 신앙이 살아남고 활발하게 지켜질 수 있겠는가?... 교인들은 자신의 신앙조차 지켜나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슬람은 무력(force)으로 복음 전파를 불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억누른다. 이슬람은 날마다 교활한 술책으로 악하고 위험한 실례를 사람들 앞에 내보이며 사람들을 이끌어 간다.²³

루터는 상당한 양의 이슬람 문헌과 정보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슬람에 관한 많은 글도 남겼다. 『루터 전집』(WA, 1883-2001)에 5,000번 이상 모슬렘 투르크가 언급되어 있음이 그 단적인 예다. 루터는 무슬림을 직접 접촉한 적은 없으나, 도미니크회 수도사가 저술한 기독교-이슬람 변증서 『꾸란 반박서』(*Refutation of the*

22 이슬람 치하에서 담미들이 열등한 존재로서 감당해야 하는 경제적, 종교적, 사회적 제약에 관해서는 Bernard Lewis, *Islam from the Prophet Muhammad to the Capture of Constantinople* (New York/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Bat Ye'or, *The Dhimmi: Jews and Christians under Islam* (Rutherford: Fairleigh Dickenson University Press, 1985)를 참조하라.

23 "On War Against the Turk," in *Luther's Work* 46:175.

Alcoran, 1300년경 출간)와 15세기 신학자 쿠사의 니콜라스(Nicolas of Cusa, 1401-1464)의 『꾸란 비판』(*Critique of the Alcoran*)도 구해 읽었다.²⁴ 1542년에는 꾸란의 라틴어 번역본을 읽으며 이슬람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축적하였다. 루터의 이슬람 관련 저술 활동을 1528-1542년까지 연대기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루터가 목회적 관심과 관점에서 이슬람의 실체를 자세하게 파헤친 책이 1529년 출판한 『투르크와의 전쟁에 대하여』였다. 1530년 루터는 『투르크들의 종교와 관습에 관한 소책자』(1481년 저술)의 서문을 써서 출판하였다. 소책자 서문에서 루터는 무슬림들의 종교의례는 철저함을 상기시키면서 가톨릭교도, 수도사, 성직자들이라도 무슬림들과 삼일만 같이 지내게 되면 자신의 신앙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1541년 출판된 『투르크에 대항하여 기도할 것을 호소함』에서 루터는 교인들의 영적 무장을 고취하였다. 그 저술 배경에는 이슬람 군대가 1526년 헝가리의 페스트를 함락시키고, 1529년 비엔나를 포위하고, 1541년 부다(Buda)를 정복하는 급박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1542년 루터는 『수도회의 설교자 리차드의 꾸란 논박서』(*Brother Richard's Refutation of the Koran*)를 독일어로 번역하여 출간하였는데, 이는 중세에 출간된 반(反)이슬람 소책자였다.²⁵ 꾸란 논박서의 주요 내용은 그리스도의 신성(divinity)과 성령을 부정하는 이슬람의 교리를 반박하는 데 있었다. 무함마드는 성경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부분을 제거했을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24 Sarah Henrich, and James L. Boyce, "Martin Luther--Translations of Two Prefaces on Islam: Preface to the *Libellus de ritu et moribus Turcorum* (1530), and Preface to Bibliander's Edition of *the Qur'an* (1543)," *Word & World* 16 (Spring 1996): 252.

25 *Brother Richard's Refutation of the Koran, translated by Dr. M. Luther* (1542), (WA 53, [261] 271-396). "On War Against the Turk," in *Luther's Work* 46:176, fn. 62, 재인용.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다고 루터는 비판하였다. 1543년 아랍어에 능통한 신학자 테오도어 비블리안더(Theodore Bibliander)가 라틴어(Latin)로 번역한 꾸란에 루터는 직접 서문을 썼다.²⁶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루터는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의 실체를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여러 이슬람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2) 루터의 이슬람 이해

이슬람에 대한 루터의 인식은 초기(1518-1528)의 수동적 태도에서 후기(1529-1546)가 다르게 나타난다.²⁷ 초기 루터는 투르크를 이단으로 간주하며, 이슬람의 도발은 하나님의 채찍이기에 기독교인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데 초점이 있었다면, 후기 루터는 이슬람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그리스도의 적’, ‘악마의 하수인’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1542년 루터는 꾸란 논박서를 독일어로 번역한 후 서문과 후기를 첨부하여 출판하였다.

1542년 초 신학자 테오도어 비블리안더(Theodore Bibliander)가 아랍어 꾸란을 라틴어(Latin)로 번역하여 출판하려고 하자 그 해 8월 바젤(Basel) 시의회원들은 라틴어 꾸란을 이단 사설로 간주하여 출판을 금지시켰다. 그러자 루터는 출판이 금지된 라틴어 꾸란을 읽어 본 후, 바젤 시의회를 설득하여 1543년 초에 출판되도록 했다.²⁸ 그 이유는 교회 설교자들과 교인들이 꾸란을 읽고 이 책이

26 Henrich and Boyce, "Martin Luther--Translations of Two Prefaces on Islam: Preface to the Libellus de ritu et moribus Turcorum (1530), and Preface to Bibliander's Edition of *the Qur'an* (1543)", 252-253. 이성덕, "종교개혁 시대 이슬람의 팽창과 루터의 입장", 『한국기독교신학논총』 24집 (2002): 153-157도 참고하라.

27 이성덕, "종교개혁 시대 이슬람의 팽창과 루터의 입장", 『한국기독교신학논총』 24집 (2002): 144-153; 정병식, "루터와 관용: 신앙과 사랑 사이의 긴장", 『韓國教會史學會誌』 제37집 (2014): 41.

28 비블리안더의 라틴어 꾸란은 1543년 바젤에서 출판되었고, 1550년 독일에서 재판이 인쇄되었다.

거짓과 잘못된 이야기로 가득차 있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고, 그러면 그들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라고 루터는 믿었기 때문이다. 꾸란이 여러 현지어(vernacular)로 번역되는 것을 무슬림들이 꺼리는 이유는 꾸란의 허구성과 거짓성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루터는 주장한다. 난곳 방언으로 된 꾸란을 읽고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무슬림들이 많이 생겨날까 염려하여 꾸란 번역을 반대한다는 것이다.²⁹ 루터는 꾸란에 나타난 예수는 그 신성을 부인하는 아리우스파(Arianism) 이단의 모습과 그 궤를 같이한다고 보았다.

유념할 점은 루터의 이슬람 이해가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가득 차있던 것은 아니었다. 루터는 무슬림들의 절제되고 정숙한 삶의 모습은 기독교인들의 신앙행태보다 더 뛰어나며,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는 독일 개신교회 내에서 이러한 무슬림들의 엄숙함과 절제를 찾아볼 수 없음을 한탄하였다.

투르크인의 종교(이슬람)는 그 의례와 종교행위에 있어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꾸란에 드러나 있듯이 무슬림들의 음식, 의복, 주택과 [라마단] 금식, 기도 생활, 일반 집회 등에서 엿볼 수 있는 정숙하고도 소박한 삶으로 특징지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다.³⁰

29 "On War Against the Turk," in *Luther's Work* 46: 176, fn. 62; Adam S. Francisco, *Martin Luther and Islam: A Study in Sixteenth-Century Polemics and Apologetics* (Leiden/Boston: BRILL, 2007), 107.

30 "Luther's 1530 Preface to the Tract on the Religion and Customs of the Turks," in Henrich and Boyce, "Martin Luther--Translations of Two Prefaces on Islam: Preface to the *Libellus de ritu et moribus Turcorum* (1530), and Preface to Bibliander's Edition of *the Qur'an* (1543)," 259.

이슬람에 대해 비교적 많은 글을 남긴 루터의 무슬림에 대한 인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슬림들은 그리스도와 마리아를 유일하게 죄 없는 사람으로 인정한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인정하지만,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다. 셋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며,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넷째,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부정한다. 다섯째, 이슬람은 유대교와 기독교 그리고 여러 이교도 자료를 종합해 만든 ‘잡동사니’(patchwork)이다. 여섯째, 이슬람에는 아버지, 아들, 세례, 성찬, 복음, 신앙, 생명 등 기독교의 주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일곱째, 이슬람은 행위 교리(doctrine of works)와 칼(sword)을 통한 무력 사용을 허락한다. 여덟째, 이슬람에는 죄의 용서, 은혜, 성령과 같은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³¹

2) 칼뱅의 이슬람 인식

루터가 이슬람에 대해 상당히 많은 글을 남긴데 비해, 칼뱅(1509-1564)은 이슬람에 대한 글을 남기지 않았다. 그러나 『기독교 강요』(1536) 초판부터 『기독교 강요』의 모든 판과 방대한 설교문과 주석을 통해 칼뱅은 이슬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빈번하게 밝혀왔다. 흥미로운 것은 칼뱅의 이슬람 인식과 이해는 루터와 매우 흡사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1 "On War Against the Turk," in *Luther's Work* 46:176-78,195.

(1) 칼뱅의 저작에 나타난 이슬람

칼뱅은 『기독교 강요』(1559)에서 무슬림(Turks)에 대해 4번 언급하고 있는데,³² 그 가운데 이슬람의 실체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분석은 단 한번 나타난다. 즉 『기독교 강요』 제2권 6장 “타락한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아야 한다”(Fallen Men Ought to Seek Redemption in Christ) 4절 “하나님 신앙은 그리스도 신앙”에서 칼뱅은 이슬람에는 중재자 되시는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는 다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다(Faith in God is faith in Christ). 따라서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요한일서 2:23)라는 요한 사도의 주장은 항상 진실이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최고의 절대자를 숭배하고 있다고 소리 높여 주장하지만 그들에게는 중재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mercy)을 맞볼 수 없으며, 그 중재자가 바로 그들의 아버지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두머리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스쳐지나가는 지식만을 소유하고 있을 뿐이다.³³

이슬람은 행위를 내세우지만, 기독교인은 자신의 공로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에 의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점을 칼뱅은 강조한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

32 칼뱅은 『기독교 강요』(Institutes)에서 투르크를 4번 언급하고 있다(2.6.4, 3.13.5, 4.2.10, 4.16.24).

33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rans. by Ford Lewis Battles, ed. by John T. McNeill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1), 348.

을 수 없다. 칼뱅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구주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칼뱅 신학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한다. 칼뱅은 이러한 그리스도 중심주의(Christo-centrism) 관점에서 이슬람을 비판한다. 그는 무엇보다도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며,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치하였으며,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idol)을 숭배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칼뱅은 “아버지(Father)라는 가장 감미로운 이름을 떠올리며 그 이름을 주장하지 않고는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없다”³⁴고 선언하였다.

이처럼 칼뱅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친밀하게 부를 수 있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특권이라고 보았다. 신론(神論)의 관점에서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개념은 칼뱅의 신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는 기독교의 친밀한 아버지 개념이 이슬람에는 존재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 칼뱅에 의하면, 이슬람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데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없다고 선언한다.³⁵

칼뱅은 『기독교 강요』 뿐 아니라 여러 성서주석을 통해 25번 이상 무슬림들을 언급하며 그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주 피력한다. 한 예로 히브리서 11:3 주석에는 칼뱅의 타종교관(이슬람 포함)이 잘 나타나 있다.

34 Ibid., 768.

35 Jan Slomp, “Calvin and the Turks,” *Studies in Intra-religious Dialogue* 19 (January 2009): 55.

인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자라는 것을 추측하지 않았다면 확실히 종교라는 것이 이처럼 모든 민족들 사이에 번성해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세계가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다는 어떤 추측은 이교도들 사이에서도 언제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어렵곤했다. 그들이 어떤 종류의 하나님을 생각해 냈을 때는 언제나 그들의 생각은 곧 애매모호해져서 진실한 하나님을 파악하기보다는 오히려 암흑 중에서 신의 그림자를 불확실하게 더듬어 찾았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그들의 마음을 훌쩍 스쳐 지나가는 덧없는 억측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어떠한 지식을 얻기에도 거리가 먼 것이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비침을 받고, 또 신앙에 의해서가 아니면 결코 파악할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이해하기까지는 모든 피조물 안에 빛나고 있는 그의 본질적인 빛에 대해서 소경인 것이다.³⁶

칼뱅은 1559년 저술한 이사야 25:9 주석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계시해 주셨으며, 기독교인들은 복음을 통해 은혜를 알게 된다고 진술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자신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지 않는 한 그들이 안전하게 의뢰할 수 있는 확연한 진리를 소유한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라”(요 4:22)고 말씀하신 바를 말할 수 있도록 자신을 계시

36 John Calvin, 존 칼빈 성경주석출판번역위원회 역편, 『신약성경주석 10 히브리서, 베드로전후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95), 246.

해 주셨다.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에 대해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애매모호한 생각으로 동요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굳게 지킨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모든 인간의 생각을 벗어 버리자”라고 말할 수 있다.³⁷

칼뱅은 무함마드와 교황은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적그리스도(Antichrist)의 두 뿔’에 해당하며³⁸, 무함마드와 교황은 진리에서 떠난 사기꾼이자 험잡꾼들(imposters)이라고 폄하하였다. 이슬람을 포함한 타종교에 대한 칼뱅의 인식은 다음의 이사야 주석에 잘 나타나 있다.

유대교도들이나 모하멧교도들이나 그 밖의 이교도들이 스스로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가상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진리 대신에 의심스럽고 불확실한 생각을 좇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으며 하나님 대신에 그들 자신의 상상을 경배한다. 간단히 말해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모든 종교가 거짓되고 변하는 것이며 그러한 종류의 예배는 모두 혐오해야 하고 단호히 정죄되어야 마땅하다.³⁹

37 John Calvin, 존 칼빈 성경주석 출판위원회 편역, 『구약성경주석 13 이사야 II』(서울: 성서원, 2003), 242-243.

38 John Calvin, *Sermons on Deuteronomy*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1987), 666, 1186.

39 Ibid., 243.

(2) 칼뱅의 이슬람 이해

칼뱅은 성경 속의 하나님의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종결되는데 반해, 무함마드는 자연신학(natural theology)으로 돌아간다고 보았다. 특히 칼뱅은 성경의 충분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과 이슬람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안에서 발견되는 계시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로마가톨릭이 성경 외에 교회 전통을 중시하듯이, 이슬람이 기독교의 성경이 아니라 꾸란을 완전한 계시로 간주하는 것과 같다고 보았다.⁴⁰ 칼뱅에 따르면, 성자 예수를 부인하는 무슬림들은 성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칼뱅에 의하면, 무슬림들은 유대인이나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상상으로 만들어낸 존재를 그들의 신으로 섬기고 있다.⁴¹ 칼뱅은 무함마드는 거짓 선지자이며, 무함마드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참된 교회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자들이며 진리의 “배교자”(apostata)라고 보았다. 칼뱅은 무슬림들도 아브라함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권을 부여받았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에서 떨어져 나간 것으로 이해한다.⁴² 칼뱅은 꾸란에 나오는 수많은 알라의 가장 아름다운 이름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단절되어 버리면 그들이 외치는 칭호는 공허한 것이 되고 만다고 단정하였다.⁴³ 또한 칼뱅은 로마 가톨릭교회의 교황과 이슬람의 무함마드는 모두 “오염되고 오래된 샘(dirty old well)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평

40 Cavin's *Opera* [이하 CO로 표기] 35:64, Slomp, “Calvin and the Turks,” 61, 재인용.

41 John Span, “John Calvin's views of 'the Turks' and of Finding Truth in Non-Biblical Sacred Texts,” *Hapshin Theological Review* 3 (2014): 209-210.

42 양신혜, “칼빈의 종교적 관용에 대한 이해,” 『한국기독교신학논총』 85집 (2013년 1월): 132.

43 CO 47:115, Slomp, “Calvin and the Turks,” 56, 재인용.

가하였다.⁴⁴

그러나 칼뱅이 이슬람과 무슬림을 항상 적대시하거나 배척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신명기 23장 7절(“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을 인용하며 ‘에돔 사람’은 세례 받은 가톨릭교인, ‘애굽 사람’은 세례 받지 못한 무슬림을 지칭한다고 보았다. 주목할 점은 기독교인들이 무슬림들에게 전도하여 그들이 돌이키면 하나님의 교회(개신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⁴⁵ 1549년 8월 칼뱅은 예레미야 13장 21절 주석에서 무슬림들이 그토록 손쉽게 유럽을 잔인하게 침공하는 이유는 유럽 사람들의 죄악(evils)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⁴⁶ 이는 루터의 해석과 매우 흡사하다.

칼뱅의 『기독교 강요』와 여러 성경주석서에 나타나 있는 그의 이슬람 이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슬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기 때문에 구속함을 받을 수 없다. 둘째,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질 수 없다. 셋째,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단절되어 있으며, 무함마드는 거짓 선지자이다. 넷째,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 대신 우상을 섬기는 우상숭배자들이다. 다섯째, 이슬람

44 John Calvin, *Calvini Opera Database*, ed. Heman J. Selderhuis, 9 (Peldom: Institute voor Reformatieonderzoek, 2005), 536. 양신혜, “칼빈의 종교적 관용에 대한 이해,” 132. 재인용.

45 Calvin, *Sermons on Deuteronomy*, 15. Francis N. Lee, *Calvin on Islam* (El Paso, TX: Lamp Trimmers, 2000), 15. 재인용.

46 John Calvin, 존 칼빈 성경주석 출판위원회 편역, 『구약성경주석 17 예레미야 II』 (서울: 성서원, 2003), 224; Slomp, “Calvin and the Turks,” 53.

은 죄지은 자녀들을 징계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rod of correction)”이다.⁴⁷ 여섯째, 이슬람은 기독교의 분파 혹은 이단으로 간주할 수 있다.

3. 종합: 루터-칼뱅의 이슬람 인식

이슬람에 대한 루터와 칼뱅의 인식과 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교개혁기의 교회가 처했던 역사적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오스만 투르크가 유럽 전역을 침공해 들어오고 서유럽의 기독교회가 이슬람 팽창의 직접적인 위협에 직면함에 따라 루터나 칼뱅은 ‘왜 하나님은 이슬람(투르크)이 기독교회에 대해 영속적인 승리를 거두도록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이러한 상황에서도 아무런 개입을 하시지 않으시는가?’ 와 같은 신학적 질문에 목회자로서 답변을 해야만 했다. 그 대답으로 루터는 이슬람을 가톨릭교회의 죄악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보았고, 칼뱅은 이슬람의 침공이 유럽의 범죄 때문에 시작되었다고 보았다. 루터와 칼뱅 두 사람 모두 가톨릭교회와 이슬람을 한데 묶어 성서적인 가르침과 참된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으로, 즉 “무함마드 = 교황”으로, “이슬람 = 가톨릭교회”로 대응시켜 비판하였다.⁴⁸

루터의 이슬람 문헌과 이해는 상당한 수준을 보여주는데 이는 그가 근거 없는 비방보다 꾸란이나 꾸란 논박서와 같은 1차 자료에 근거하여 이슬람을 비판하였기 때문이다. 루터는 당시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이슬람 문헌과 자료를 섭렵한 “독일 최고의 이슬람 전문

47 John Calvin, *A Commentary on Jeremiah*, vol. 1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and Trust, 1989), 285.

48 김정명, “종교개혁 시대 프로테스탄트들의 이슬람에 대한 이미지 연구,” 『중동연구』 제34권 (2015년): 71.

가 가운데 한 명”이었다.⁴⁹ 루터가 이슬람에 관해 많은 글을 남긴 것에 비해 칼뱅은 이슬람이나 무슬림을 주제로 저술을 남기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의 이슬람 이해는 루터에 비해 단편적이었다. 그러나 『기독교 강요』와 여러 주석서를 통해 칼뱅은 이슬람에 대해 수많은 언급을 하였다. 루터만큼은 아니지만 칼뱅도 나름대로 이슬람의 실체를 잘 파악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여러 점에서 칼뱅의 이슬람에 대한 인식은 루터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루터나 칼뱅이 이슬람에 관심을 가진 것은 개종이나 선교적 차원이 아니라 목회적, 신학적 차원에서 다루었다. 그들은 이슬람을 결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으며, 기독교론-신론-성경론-성령론 등의 분야에서 기독교와 이슬람 사이에 신학적 연속성이나 공통점이 거의 없다고 보았다.

IV. 맺는 말: 무슬림에 대한 선교적 제언

기독교와 오랜 기간 갈등과 공존의 역사를 반복해 오던 이슬람에 대한 교회의 인식은 여러 세기에 걸쳐 형성되어 왔다. 이슬람에 정복당한 지역에 거주하던 시리아 정교회 교인들, 오랜 기간 무슬림들과 접촉을 이어오던 비잔틴 제국의 기독교인들, 그리고 이슬람 통치하의 스페인 기독교인들은 무슬림 공동체(*ummah*)를 직접 체험하면서 이슬람의 실체를 점점 더 알아가기 시작하였다. 7세기 중엽부터 십자군 전쟁기 그리고 16세기 종교개혁기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이슬람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49 Ibid., 72.

8세기 이후 종교개혁 시대까지 교회는 이슬람을 기독교 이단, 분파,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보았고, 무함마드를 사기꾼,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등으로 간주하였다. 비록 간헐적으로 이슬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19세기 개신교선교운동의 전성기까지도 교회는 이슬람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정복이나 개종의 대상으로 보았다. 그러나 1910년 에딘버러 세계선교사대회에서 타종교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선교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에딘버러 선교대회는 삼위일체론, 예수의 성육신, 십자가(대속적 죽음) 등을 이슬람 선교의 주요 걸림돌로 명시하였다.⁵⁰ 이슬람은 사탄이라고 보는 선교사들은 거의 없었으나, 일부 선교사들은 이슬람을 ‘거짓’, 꾸란은 혼합해서 베끼기(plagiarism), 알라라는 우상, 거짓 신, 폭군으로 규정하였다.⁵¹ 로마 가톨릭의 경우 제2차 바티칸공의회(1962-65) 이후 이슬람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고 개신교의 경우에는 1970년대와 80년대에 세계교회협의회(WCC)를 중심으로 이슬람을 긍정적으로 보는 전향적 태도를 지니게 되었다.

루터가 그랬듯이 에딘버러 선교사대회에는 이슬람에 대한 경의와 동정심을 표하는 선교사들도 있었다. 이슬람권 선교사 사무엘 즈웨머(Samuel Zwemer)는 기독교 신앙은 위대한 진리임을 확신하는 우리는 무슬림들의 절제된 생활, 알라의 뜻에 대한 절대복종, 금주 등을 긍정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⁵² 오늘의

50 *World Missionary Conference, 1910: Report of Commission IV The Missionary Message in Relation to Non-Christian Religions with Supplement: Presentation and Discussion of the Report in the Conference on 18th June 1910*, 김창운 역, 『비기독교 종교들에 대한 선교적 메시지』 (서울: 한국연합선교회, 2012), 173-174.

51 Kenneth Cracknell, *Justice, Courtesy and Love: Theologians and Missionaries Encountering World Religions, 1846-1914* (London: Epworth Press, 1995), 231.

52 *Ibid.*, 232.

다종교 상황에서 기독교 선교는 무슬림과 공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내에도 상당수의 무슬림이 거주하기 시작하며 히잡을 두른 무슬림 여성들을 자주 볼 수 있다. 이슬람은 더 이상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의 이웃종교가 되어가고 있다. 우리 이웃으로 살아가는 무슬림들을 환대와 사랑으로 대하라는 즈웨머 선교사의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

십자군 전쟁(11-13세기)은 오래 전에 끝났지만, 기독교-이슬람 간 분쟁과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 국제신종교연구센터(Centre for Studies on New Religions)가 세계 102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2016년 전 세계에서 종교간 분쟁과 갈등으로 9만 명의 기독교인이 사망했으며, 사망자의 상당수가 무슬림의 공격에서 비롯된 것이었다.⁵³ 최근 독일 베를린, 프랑스 파리, 터키 이스탄불을 비롯한 서유럽 등지에서 발생한 무슬림들의 무자비한 테러는 선량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자행되었다. 선교적 입장에서 볼 때 무슬림도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슬람을 기독교 분파나 이단, 사기꾼, 사탄이나 적그리스도로 간주하기보다 타종교 혹은 이웃 종교로 대해야 한다.

이슬람권 선교사들은 꾸란과 성경에 대한 철저한 지식을 바탕으로 복음을 변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슬람의 약점을 공격함으로써 불필요한 논쟁과 적대감을 유발하지 말고, 관심과 사랑과 배려를 통해 무슬림과 친근한 관계를 형성한 후에 복음을 나누어야 한다.⁵⁴ 무슬림으로 있다가 기독교인(MBB)이 된 나빌 쿠레

53 신상목, “6분에 1명꼴 기독교인 박해로 숨졌다.” 「국민일보」 2017년 1월4일자.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176921&code=61221111&cp=ny>
 (2017년 1월 23일 접속).

54 변창욱, “이슬람 선교의 걸림돌 이해: 1854년 인도 아그라(Agra) 논쟁을 중심으로,” 「선교신학」 35 (2014년 2월): 125-163.

쉬는 전도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기독교 전도자들의 말에 무슬림들은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고 했다. 기독교인 친구와 논쟁하다가 그가 기독교로 개종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무슬림인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여주는 친구의 사랑 때문이었다고 고백한다.⁵⁵

꾸란에는 예수 이름이 100번 이상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예수의 죽음은 딱 1번(꾸란 4:157) 언급되며,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은 부인되고 있다. 이처럼 꾸란에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예수의 신성과 십자가 그리고 속죄 개념이 없을 뿐 아니라 부인되고 있다. 무슬림들에게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걸림돌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주님께 지혜와 능력을 간구하자.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의해 움직이시기 때문이다.

55 나빌 쿠레쉬, 『알라를 찾다가 예수를 만나다』, 박명준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187-188.

■ 참고문헌

- 김정명. “종교개혁 시대 프로테스탄트들의 이슬람에 대한 이미
지 연구.” 『중동연구』 제34권 (2015): 59-92.
- 변창욱. “이슬람 선교의 걸림돌 이해: 1854년 인도 아그라(Agra)
논쟁을 중심으로.” 『선교신학』 35 (2014년 2월): 125-163.
- _____. “기독교의 이슬람 이해: 역사적 개관.” 『교회와 신학』
제78집 (2014): 328-348.
- 성백용. “십자군 시대 서유럽의 이슬람세계에 대한 인식과 담론
의 유형들.” 『역사와 담론』 80 (2016년 10월): 321-359.
- 안신. “칼빈의 유대교와 이슬람에 대한 이해.” 『인문과학연구
논총』 제38호 (2014): 237-255.
- 양신혜. “칼빈의 종교적 관용에 대한 이해.” 『한국기독교신학논
총』 85집 (2013년 1월): 117-142.
- 이성덕. “종교개혁 시대 이슬람의 팽창과 루터의 입장.” 『한국
기독교신학논총』 24집 (2002): 139-162.
- 이은재. “기독교와 이슬람: 라이문두스 룰루스(Raimundus Lullus)
를 중심으로.” 『한국개혁신학』 12권 (2002): 101-120.
- 정병식. “루터와 관용: 신앙과 사랑 사이의 긴장.” 『韓國教會史
學會誌』 제37집 (2014), 31-58.
- 존 칼빈. 칼빈 성경주석출판번역위원회 역편. 『신약성경주석 10
히브리서, 베드로전후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서울: 성
서교재간행사, 1995.
- _____. 칼빈 성경주석 출판위원회 편역. 『구약성경주석 13 이사
야 II』 서울: 성서원, 2003.

- _____. 칼빈 성경주석 출판위원회 편역. 『구약성경주석 17 예 레미야 II』 서울: 성서원, 2003. “The Apostle of Algeria: Raymond Lull, 1236–1315.” *ModernChurchman* 32 (January 1843): 329–336.
-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rans. by Ford Lewis Battles, ed. by John T. McNeill.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1.
- _____. *Sermons on Deuteronomy*.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1987.
- _____. *A Commentary on Jeremiah*, vol. 1.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and Trust, 1989.
- Choi, David Sukwon. “Martin Luther’s Response to the Turkish Threat.” *Ph.D. diss.*,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2003.
- Cracknell, Kenneth. *Justice, Courtesy and Love: Theologians and Missionaries Encountering World Religions 1846–1914*. London: Epworth Press, 1995.
- Francisco, Adam S. *Martin Luther and Islam: A Study in Sixteenth-Century Polemics and Apologetics*. Leiden/Boston: BRILL, 2007.
- Griffith, Sidney H. “Anastasios of Sinai, the Hodegos, and the Muslims.” *Greek Orthodox Theological Review* 32 (Winter 1987): 341–358.
- _____. *The Church in the Shadow of the Mosque: Christians and Muslims in the World of Isla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8.

- Henrich, Sarah and James L. Boyce. "Martin Luther--Translations of Two Prefaces on Islam: Preface to the *Libellus de ritu et moribus Turcorum* (1530), and Preface to Bibliander's Edition of *the Qur'an* (1543)." *Word & World* 16 (Spring 1996): 250-266.
- Lee, Francis N. *Calvin on Islam*. El Paso, TX: Lamp Trimmers, 2000.
- Lewis, Bernard. *Islam from the Prophet Muhammad to the Capture of Constantinople*. New York/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 Luther, Martin. "Explanations of the Ninety-five Theses." In *Luther's Work* 31.
- _____. "On War Against the Turk." In *Luther's Work* 46.
- _____. "On War Against the Turk." In *Luther's Work* 46: 184-199.
- _____. "Whether Soldiers, Too, Can Be Saved." (1526) In *Luther's Work* 46:89-137.
- Pelikan, Jaroslav. *The Growth of Medieval Theology(600-1300)*. Chicago/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8.
- Sahas, Daniel J. *John of Damascus on Islam: The "Heresy of the Ishmaelites."* Leiden: E. J. Brill, 1972.
- Slomp, Jan. "Calvin and the Turks." *Studies in Intrreligious Dialogue* 19 (January 2009): 50-65.
- Southern, Richard W. *Western Views of Islam in the Middle Age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62.

Span, John. "John Calvin's views of 'the Turks' and of Finding Truth in Non-Biblical Sacred Texts." *Hapshin Theological Review* 3 (2014): 187-228.

World Missionary Conference, 1910: Report of Commission IV The Missionary Message in Relation to Non-Christian Religions with Supplement: Presentation and Discussion of the Report in the Conference on 18th June 1910. 김창운 · 장남혁 역. 『비기독교 종교들에 대한 선교적 메시지』. 서울: 한국연합선교회, 2012.

Yannoulatos, Anastasios. "Byzantine and Contemporary Greek Orthodox Approaches to Islam." *Greek Orthodox Theological Review* 55 (2010): 63-88.

Ye' or, Bat. *The Dhimmi: Jews and Christians under Islam*. Rutherford: Fairleigh Dickenson University Press, 1985.

신상목. "6분에 1명꼴 기독교인 박해로 숨졌다." 「국민일보」 2017년 1월 4일.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176921&code=61221111&cp=nv>. (2017년 1월 23일 접속).

■ ABSTRACT

The Reformers' Views on Islam

Chang Uk Byun

This article examines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the changing views of Islam and Islam's relation to Christianity particularly according to the Reformers Martin Luther and John Calvin. For this purpose, the author examines several pre-Reformation theologians' views on Islam by analyzing the writings of Anastasios of Sinai, Theodore bar Koni, John of Damascus, and Raymond Lull, and notes that their views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both Martin Luther and John Calvin's understanding of Islam. Between 7th-16th centuries Christianity made frequent contacts with Islam, and Christian perception of Islam underwent significant changes. In the early period of the Byzantine Empire (4th-15th centuries) Christians of the Eastern Church regarded the rising of Islam in the 6th Century Arabian Peninsula as either a Christian schism or a heresy. But with the Siege of Jerusalem by Muslims in the 7th century and the subsequent start of the First Crusades in the 11th century, the Church started to see Islam as an enemy to the Christian Church. By the time of the Fourth Crusade in

the 13th century, a small number of positive views about Islam emerged among Christians; but by and large, the Church's general view of Islam was negative until the Protestant Reformation in the 16th century.

Martin Luther and John Calvin, who lived during Ottoman Turks' further expansion into Central Europe, were quite familiar with the Islamic literature and understood Islam as God's chastening rod or whip.

Keywords: Reformer's views on Islam, Luther, Calvin, John of Damascus, Raymond Lull